

무주군 협소 송아지 출생

4농가서 7마리

무주군은 9개월 전 협소 수정란을 이식했던 4농가에서 송아지 7마리가 탄생했다.

이는 군이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협소 육종 특화사업의 첫 결실로 오는 8월까지 12농가에서 70마리가 더 생산될 예정이다.

협소 육종 특화사업은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군은 협소 송아지 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반딧불 배넷소 대부 사업(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암송아지를 군에서 구입해 릴레이식으로 공급/수송아지는 종모우 또는 협소 판매장에 공급)을 연계시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해갈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첨단생명공학(수정란이식)기법을 이용해 12농가 128마리에 수정란 이식을 완료했으며 연차적으로 70~80마리의 송아지가 생산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은 협소 수정란을 이식했던 농가에서 송아지가 탄생했다.

적성면 한동진 씨는 "희소 가치가 높은 협소 육종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건강한 송아지를 생산하기까지 걱정도 많았는데 정말로 기쁘다"며 "잘 키워서 소득도 높이고 무주군 협소 브랜드를 완성시키는 대표 주자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

협소 브랜드 개발과 지역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3월 한경대학교유전공학연구소(협소의 유전자원 분

석과 정보제공 담당), 영농조합법인 우보(수정란 이식과 협소 유전자원 확보 담당)와 "협소 육종 특화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던 군은 이들 기관과 함께 △고유 협소 품종 확보와 △협소의 종 보전을 비롯한 유전자원 확보, △협소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축산농가 기술력 향상 그리고 군 축산발전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은 강풍으로 뜯겨진 비닐하우스 복구에 총력을 쏟고 있다.

무주군, 강풍 피해 응급 복구

6개 읍면 피해농가 돌며 지원

무주군은 22일까지 강풍피해 복구를 위한 일손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평균 초속 20m(최고 부남면 37.5m/s, 무주읍 15.7m/s)로 불었던 강풍으로 6개 읍면에서 비닐하우스와 비가림시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1백 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군에서는 각 읍면 직원들과 농업, 건설교통, 재난안전, 환경산림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정밀 조사하고 19일부터는 응급복구를 돕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령자와 부녀자 우선으로 인력을 지원하고 파손된 비닐하

우스를 철거하는 등의 응급복구에 집중하고 있다"며 "농가들의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복구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773부대 4대대 장병 50여 명도 지난 19일 적성면과 부남면, 안성면에서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을 복구하고 풀조를 철거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으며, 22일에는 무풍면에서 일손을 도울 예정이다.

피해 농업인들은 "한 해 농사가 시작하는 시점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게 돼 걱정이 많다"며 "어려운 때에 공무원들과 군인들이 거들어주시니 한결 든든하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유니세프 제네바본부가 완주군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니세프 제네바본부, 완주군 방문

유니세프 제네바본부가 완주군을 방문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유니세프 제네바본부의 Venessa Sedletzki(아동친화도시 컨설턴트)씨와 일본위원회 Mikami Tatsuru(수석옹호관리자)씨 등이 한국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완주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요업무와 운영 등에

관한 사례조사를 위해서다.

유니세프 관계자들은 박성일 완주군수, 한일장신대학교 김응수 교수, 더드림복지연구소 홍문기, 우석대학교 임재준 군(어린이의회하고 서포터즈) 등과 함께 아동친화도시의 의미, 가치, 아동권리 등 다양한 사례들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 학부모 등의 인터뷰도 진행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문종식·애향장 김점분·효열장 이순욱

진안 안천면민의장 수상자 선정

진안군 안천면(면장 유철호)은 최근 제42회 안천면민의장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문종식(57 전 체육회부회장)씨, 애향장에 김점분(64 부천시 고강동)씨, 효열장에 이순욱(53 안천보건지소 근무)씨를 2016년 면민의장 수상자로 확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종식씨는 2006년부터

2년간 체육회 총무를 역임하면서 안천체육회의 기틀을 다졌을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안천체육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안천면민의회와 체육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왔다.

애향장 김점분씨는 노성리 노채마을 출신으로 재경안천향우회 총무를 맡으면서 여성특유의 친화력으로

로 향우회간의 작은 일들을 챙기며 어느 향우회를 보다 탄탄하고 끈끈한 조직으로 활성화시킨 공로가 인정됐다.

효열장 이순욱씨는 1988년 결혼하여 지금까지 안천면 읍내마을에 거주하면서 허리가 불편한 시부모를 1995년까지 모셨으며 뇌졸중으로 쓰러진 시아버지를 7년간 모시는 등 시부모 공경에 헌신하는 물론, 현재 홀로된 시어머니와 함께 안천에 거주하며 공직자로서 웃어른 공경을 내 부모처럼 모시어 모범을 보였기에 공을 인정받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 경천면 '치유의 숲 조성' 첫걸음

올해 2억원 들여 숲길·숲속도서관 조성

완주군 경천면에 힐링을 위한 치유의 숲 조성 첫 걸음이 시작됐다.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산 51번지에 경천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2015년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군은 치유의 숲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올해 군비 2억원을 투입하여 치유숲길과 숲속 도서관을 조성한다.

경천 편백 숲은 26년생 6천평을 포함한 총 1만 8천평의 편백나무가 조성되어 있으며, 사람의 발길이 많지 않아 숲이 잘 보전되어 있다.

특히 주변에 계곡과 바위들이 있어 조용히 명상할 수 있는 산림치유 최적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편백숲 일원에 1.8km의 치유숲

길 및 숲 속 도서관을 조성하여 환자들은 물론 일반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치유와 힐링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신호 산림축산과장은 "소득과 여가시간 증가로 숲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며, "이용객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치유를 만끽할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고원 전학산업과
063-430-2951

로컬푸드리츠

진안 부귀, 장미 1만여 그루 심어

진안군 부귀면(면장 이해석)은 20일 기관 사회단체, 이장단, 청년회, 주민자치회, 노인일자리 참여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재지 진입로와 유원지, 마을회관 등에 장미꽃 1만여 본을 식재했다.

이번 장미꽃 식재는 진안군 퇴직공무원으로 현재 부귀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석근씨를 통해 1만본 전량을 기부 받아 진행되었으며, '수만송이 장미꽃이 피는 행복한 부귀' 조성을 통해 환경정비는 물론 방문객 볼거리를 제공으로 한층 더 품격 있는 부귀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도공 전북본부 축제홍보 업무협약 체결

장수군(군수 최응득)은 20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전주 덕진구 소재)에서 전라북도과 충청도 17개 시·군 및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지역축제 및 고속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수군의 대표 관광자원인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를 고속도로와 연계해 관광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고속도로 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수군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축제개최 시 휴게소 등 고속도로 시설물을 활용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개그맨 이흥렬 초청강연

무주군은 20일 명사·전문가 초청 Happy 365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개그맨 이흥렬 초청 강연(주관 무주문화원)을 실시했다.

무주읍 전통문화의 집 강당에서 "웃음과 긍정의 삶"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강연에는 무주군청 공무원들과 주민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흥렬 씨는 이 자리에서 웃음의 중요성을 말하며 웃으면서 발생하는 긍정의 에너지가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명사·전문가 초청 Happy 365 문화행사는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 실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군이 민선 6기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도을 김용욱 강연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이흥렬 씨 강연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영화감독 정재은, 작가 장영단, 방송인 이상벽, 태권도 국가대표 이대훈, 김소희 선수 등을 초청해 총 10회의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도 오늘처럼 많이 웃으며 좀 더 여유로움과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목공예 프로그램 진행

(사)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회장 최봉선)은 8월까지 매주 화요일 09:00~12:00(3시간) 10회에 걸쳐 노인건강, 취미활동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목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에게 나만의 가구(받상, 정리함, 서랍장 등)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감·자부심 상승효과와 가구를 만들면서 어르신들 간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여 소외된 마음이 사라지고 행복한 마음이 형성되어 우울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봉선 회장은 "지역의 특성과 경로당에 따라 경로당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